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5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16일 (음력 12월 11일) 수요일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유치 재가동 청신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유치 협상절차 재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광주시를 둘러싼 주변 여건에 긍정적인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신사업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국토교통부 수도권경쟁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전망이다.

현대차가 3조7000억원을 투자해 건설예정인 GBC는 지상 105층(569m) 규모의 초고층 건물로, 그동안 사업계획이 수도권경쟁비위에 3차례나 보류된 바 있다.

GBC 정부 심의 통과·금타 빛고을산단 이전 등

이용섭 시장 ‘광주형 일자리 T/F’ 확대 개편도

이에 따라 현대차는 정부를 상대로 GBC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와 관련하여도 끊임없이 연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GBC 심의에 사활을 걸다시피해온 현대차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과제로 추진

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배경에 깔려 있다.

따라서 이번 GBC 심의 통과가 어떤 식으로든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빛그린산단 이전 방

향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미래에셋대우는 16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부지개발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빛그린산단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현대차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부지로 예정돼 있다.

그동안 금호타이어 측은 국내공장 설비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추진 여부에 주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빛그린산단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고 금호타이어가 여기에 신차용 타이어를 납품하게 되면 안정적인 생산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지연돼 왔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빛그린산단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투자유치와 연계 분석하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노사 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하면서 금호타이어 업무협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유일한 쟁점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투자협상추진단을 ‘광주형 일자리 추진 T/F’로 확대개편하고 시장이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발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입당 불허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이영호·손준주 의원의 복당 및 입당 불허를 계기로 당 진입 장벽을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비롯해 차기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앞두고 복·입당 신청이 잇따를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통해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현대화된 당을 만드는 작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준 마련이 너무 늦으면 통상적으로 선거용 기준이 되기 쉬운데, 당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잘 설정해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두 의원이 입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자, 정가에선 민주당이 이를 허가할 경우 범여권 인사들의 추가 입당 신청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이영호



이해찬



박지원



미세먼지 가득 광주도심

광주와 전남 대부분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가 내려진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일대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전남도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올해 1만ha 목표

오는 22일부터 신청...ha 당 340만원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키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조정제의 하나로, 2019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등 타작물을 심으면 ha(3000 평)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지역 계획면적은 1만 1661ha로 전국(5만 5000ha)의 21% 규모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말 사업 시행지침을 시군과 관

련 기관단체에 통보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참여농지와 쌀번동작물급 지급농지 및 2018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있는 농업인(법인)이 작물을 심지 않을 경우도 휴경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간척지나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지불금 수령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다년생을 포함한 모든 작물에 대해 이뤄진다. 과잉 생산 시 수급 불만이 우려되는 무·배추·고추·대

파 품목은 제외된다.

ha(3000 평)당 사업비는 조사료의 경우 지난해 40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콩 등 두류는 280만 원에서 32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쫄겨를 등 일반작물은 340만 원, 올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 휴경의 경우 280만 원이 지원된다.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신청은 6월 28일까지 5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올해는 옥수수·수단그라스 등 하계 조사료를 유동·관매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축협이나 조사료가공업체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해 판로를 확보해야만 신청이 가

능하다.

전남도는 오는 21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시군 읍면 등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후 각종 교육과 대책회의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폭염·호우 등 여러 차례의 자연재해로 일부 논 타작물이 피해를 입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품목별로 적합한 지역에 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 위주로 재배토록 하고, 현장의 문제점도 적극 수렴해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은 콩과 조사료 등 총 8천 178ha(계획면적 1만 698ha의 77%)였다. 사업에 참여한 1만 100여 농가에 281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김경환 기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